

‘사냥의 시간’ 감독 “어려운 상황...관객 만나 기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기쁘게,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냥의 시간’ 윤성현 감독이 영화가 우여곡절 끝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소감을 밝혔다. 앞서 ‘사냥의 시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한 차례 연기됐고 배급사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간의 갈등으로 넷플릭스 공개도 보류된 바 있다.

윤성현 감독은 27일 오전 넷플릭스 영화 ‘사냥의 시간’ (감독 윤성현) 관련해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2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은 영화다.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박해수 등이 출연한다.

윤성현 감독은 10대 청소년들의 세밀한 심리를 탁월하게 그려낸 장편 데뷔작 ‘파수꾼’으로 2011년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영화제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을 석권, 한국 영화계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그런 윤성현 감독이 ‘파수꾼’에서 함께 했던 이제훈 박정민과 9년만에 신작을 내놨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사냥의 시간’이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아쉬움은 없는지, 넷플릭스 공개로 기대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공개까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개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넷플릭스라는,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기쁘게,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다.

연출자로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부담감, 적정은 없었는지.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개봉이 밀려서 안타까웠고 원래 일정대로 갔으면 싶은 게 있었다. 당연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만 지나고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 안에서 개

봉이 밀리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었고 그것에 대해 조금씩 하거나 불만 갖기 보다는 조용히 기다리면서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래서 조금씩 하면서 기다리진 않았다. 차분하게 기다렸고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이 상황 안에서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그 기회 속에서 공개됐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파수꾼’ 이후 9년 만에 신작을 선보이게 됐다. 오랜만에 관객들을 만나는 소감은.

▶9년만에 의도치 않게 두 번째 작품을 보여드리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빨리 찾아뵙고 많은 작품을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공교롭게 오래 걸렸다. 그런 부분이 슬프긴 했지만 9년만에 만날 수

코로나19로 개봉 연기 이후 넷플릭스 공개

독립영화 ‘파수꾼’서 이제훈·박정민과 호흡

“한국사회 살아가는 청춘에 대한 화두 던져”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다. 관객들의 반응도 찾아보면서,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감사했고 ‘이렇게 보시고 계시구나’ 했다고. 이걸 하나 하나 보면서 행복해 하고 있다.

‘사냥의 시간’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처음 시나리오 쓰기 시작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것 같다. 시나리오를 쓸 당시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사회를 지옥에 빗대서 표현하는 말이 유행했고 이는 청년들의 박탈감, 분노에서 시작된 용어라 생각했다. 생존에 대한 어떤 절박함들, 이런 것들을 장르적인 형태로 표현해보면 좋지 않을까 했다. 지옥에 빗댄 표현이었지만 영화를 통해 실제 지옥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했다. 절박한 생존에 대한 모습을 담은 게 재밌겠다 싶어 이야기를 구성하게 됐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담아내려 노력했다. 결과적으로는 주변 동생, 친구들, 생존 문제 직결돼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메시지를 드라마라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큰 형태의, 장르 영화 속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했다. 어떻게 보면 청춘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영화라는 게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관객을 위해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갖고 있다 해도 그대로 봐주시길 바라지 않는다. 장르영화로 봐주셔도 좋고 그 안에 있는 의미와 생각을 찾아주시면 감사하다. 장르영화인 만큼,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엔딩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고 떡밥들이 많은데, 열린 결말을 의도한 것인지 2편을 염두한 것인지.

▶분명 떡밥을 회수하는 영화들이 있지만 그 회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다. 영화의 본질적인 영역에서 관객 분들의 해석으로 여백을 채워주었다.

‘사냥의 시간’도 의도된 여백이었지만, 극 중 인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거기서 개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떡밥으로 던져진 요소들이 예측 불가능한 요소는 아니다. 경찰이 나오고 VIP와 CCTV가 나오고 비리, 부패 세력과 결탁된 인물들 등... 그런 요소들로 영화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도였지 해소돼야 했던 떡밥은 아니었다. 2편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도 없다. 저는 이 영화가 완결된 영화로 생각하고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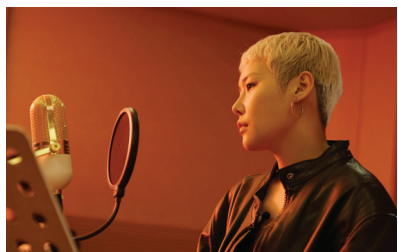
‘파수꾼’에 이어 ‘사냥의 시간’까지,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춘에 대한 화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근원이 궁금하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개인적인 취향이 아무래도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녹아든 작품이다. 물론 그런 관점이 녹아들지 않아도 좋은 작품이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 시대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있으면 풍성해질 수 있다 생각한다. (청춘에 대한 화두는)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보려 했다. ‘사냥의 시간’은 장르영화임에도 그런 (화두)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요 현대에 젊은이들에 대한 은유가 있지만, 진지하게 (이 화두에 대해) 다방면의 시선을 담은 영화라 생각하진 않는다. 서스펜스 영화이고 추격영화고 장르영화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파수꾼’은 사회 드라마다 보니까 소통,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갈등과 죽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이야기였다. ‘파수꾼’이 사회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개인화한 영화라면, ‘사냥의 시간’은 장르화한 영화다. 개인화, 장르화의 차이였고 (청춘들에 대한 관점이라는) 시작점은 같았다.

‘초미의 관심사’ 래퍼에서 배우 김은영으로...치타의 변신

배우 조민수와 가족 같아 보이지 않는 모녀



래퍼 치타(본명 김은영)가 영화 ‘초미의 관심사’ (감독 남연우)를 통해 배우로 변신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며 국내 대표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로 자리 매김한 치타가 ‘초미의 관심사’를 통해 배우 김은영으로 깜짝 변신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돈을 들고 된 막내를 찾기 위해 단 하루 손잡은 극과 극 모녀의 예측불허 추격전이다. 김은영은 ‘초미의 관심

사’에서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 조민수와 함께 도저히 가족 같아 보이지 않는 ‘케미’ 실증 모녀 바이브를 자랑한다.

극 중 조민수의 딸이자 이태원에서 활동하는 가수 순덕 역을 맡은 그녀는 명절도 안인데 갑자기 들이닥친 엄마에게 ‘왜 이렇게 난리야. 지금 너무 난리야’ “우리가 오손도손 안부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잖아?” 등 거침없는 대사들을 날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는 캐릭터를 연기했

다. 김은영은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한 것임에도 자신의 캐릭터를 시크한 매력으로 완성해 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김은영의 랩이 아닌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 중 하나다. ‘초미의 관심사’의 OST를 직접 작사, 작곡해 명곡을 탄생시킨 그는 영화 속에서도 직접 노래를 불러 극의 재미를 한층 더 높였다.

한편 ‘초미의 관심사’는 5월 개봉 예정이다.

뉴스1

신하균·정소민, 감성 가득

‘영혼의 왈츠’ 모습 공개

‘영혼수선공’ 신하균 정소민의 몸과 마음을 활짝 피게 만드는 ‘영혼의 왈츠’ 모습이 담긴 메인 포스터가 공개됐다.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영혼수선공’ (극본 이현희/ 연출 유현기) 측은 27일 신하균과 정소민의 아름다운 ‘영혼의 왈츠’ 현상이 담긴 메인 포스터를 외부에 선보였다.

‘영혼 수선공’은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치유’하는 것이라고 믿는 정신의학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마음 처방극이다.

공개된 포스터 속 신하균과 정소민은 보랏빛에서 금빛으로 퍼지는 바다 위 노을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떠오르게 만든다.

갯세븐 새 앨범 ‘다이’ 자체 초동 신기록



그룹 갯세븐(GOT7)이 자체 초동 판매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20일 발매한 새 앨범 ‘다이(DYE)’는 음반 집계 사이트 한터 차트 기준 초동 28만1791장을 넘어섰다.

이 앨범(DYE)은 음반 집계 사이트 한터 차트 기준 초동 28만1791장을 넘어섰다.

이는 전작 ‘콜 마이 네임’(Call My Name)의 초동 기록인 22만4459장을 뛰어넘은 수치로 그룹 자체 최고 기록이다.

한터 주간 음반 차트 4월 넷째 주(지난 20일~26일 기준)에서도 1위를 거머쥐며 겹경사를 맞았다.

한편 갯세븐은 지난 23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음악 방송 활동에 돌입했다. 신곡 ‘넋 바이 더 문’(NOT BY THE MOON)은 역대급 난이도의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또 한 수록곡 ‘포이즌’(POISON)의 안무 창작에는 진영, 유겸, 잭슨이 참여했다고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김준희, 5월의 신부된다

비연예인 남친과 가족과 친지만 모시고 비공개 결혼

방송인 겸 사업가 김준희가 5월의 신부가 된다.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김준희가 (예비 신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이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라며 “결혼식은 오는 5월21일 모처에서 가족과 친지만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준희의 예비 신랑은 일반인으로 현재 김준희씨와 함께 소꿉물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 후 함께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김준희의 앞날에 따뜻한 축복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사랑과 관심만큼 더욱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김준희도 직접 결혼 소식을 전했다. 이날 소속사 공식입장 발표에 앞서 김준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혼 소식을 전하는 순간이네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장문의 글을 게시합니다.”

해당 글에서 김준희는 “저 결혼해요. 그동안 말씀 못 드렸던 것 죄송해요. 언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같아서 고백합니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결혼식은 5월2일이고요, 가족분들만 모시고 아주 아주 조용히 작은 웨딩을 할게 해요”라며 “그래서 주변 친구들, 지인분들께도 말씀드 못 드리고 초대도 못 드



려 이 자리를 대신해 죄송하던 말씀 드려요. 절대 섭섭하거나 서운해 말아주세요”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준희는 “일디와 저 잘 살게요. 좋은 날 함께 하는 저희 두 사람, 앞으로 축복해 주시고 좋은 모습 많이해주세요”라며 “축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뻐말씀들 늘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김준희는 비연예인 연인과의 열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당시 김준희가 예비신랑과 1년 정도 열애 중이라고 밝혔다. 김준희의 남자친구는 모델 같은 건장한 체격에 뛰어난 패션센스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준희는 1990년대 중반 혼성 아이돌 그룹 뮤(MUE)로 방송 생활을 시작해 방송 진행자와 배우 등으로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온라인 쇼 핑몰의 CEO로 활동 중이다.